

수영 클럽·동호인 활성화 밑거름

광주수영대회 성공, 레거시에서 찾다

<6>로마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노하우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인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 세계수영대회를 모두 치러본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뿐이다. 한국은 오는 7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 5대 메가스포츠대회를 모두 치르는 네 번째 나라가 된다.

이탈리아 로마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2차례 치른 도시이며, 대회를 통해 관광 상품을 키우고 시민 수영 인구를 늘리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차례 개최=로마는 1994년 제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09년 제13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2차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로마수영대회는 주경기장 포로 이탈리아(Foro Italic)수영장에서 수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수구가 열렸고, 로마 근교 오스티아 바다에서 오픈워터 경기를 진행했다.

포로 이탈리아는 로마의 스포츠 단지 중의 하나로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 스포츠전문대학 포로이탈리아 대학교와 인접해 젊은 대학생과 스포츠인들이 평일에도 이용을 하고 있다. 특히 1960년 로마올림픽 등 중요한 대회가 열렸던 장소로 권위 있는 스포츠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포로 이탈리아 주경기장은 주로 클럽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돼 주말에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구경기가 열린다고 한다.

수영대회 15년간 2차례 개최

1930년대 건립 포로 이탈리아

관리 잘돼 있어 주경기장 활용

2022년 유럽선수권 유치 계획

"미디어센터 24시간 운영돼야"

◇수영 클럽 활성화=로마에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시설인 올림픽 스타디움(Stadio Olimpico), 화려한 마르미 스타디움(Stadio dei Marmi) 등 수많은 스포츠 경기장이 인접해 있다.

포로 이탈리아 수영장은 실내와 야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실내 수영장이 갖춘 건물은 1930년대에 지어졌다. 로마로 이탈리아 건물은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제수영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이탈리아수영연맹 플라미니아 귀디(Flaminia Guidi)국제부장은 "로마는 스포츠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영만을 선택해 저변 확대를 하지 않아도 활성화 돼 있다"며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조금 더 붐업이 돼 수영인구를 성장시켰지만, 이탈리아 사람들 자체가 수영을 좋아하고 즐기기에 동호인 사람들을 포함해 500만명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했다.

이탈리아가 수영대회를 개최해서 수영 인구의 저변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수영 클럽·동호인들의 활성화가 선행됐기 때문에 수영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철저한 대회 준비=이탈리아는 수영대회를 15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면서 스포츠 시설 유산을 로마시에 남겨두는 등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수영연맹 피에로 메이(Piero Mei) 미디어 담당자는 "1994년 대회 이후에 2009년 대회를 유치했던 것은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라며 "세계선수권대회로 또 한 번 대회를 유치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2022년 유럽선수권대회 유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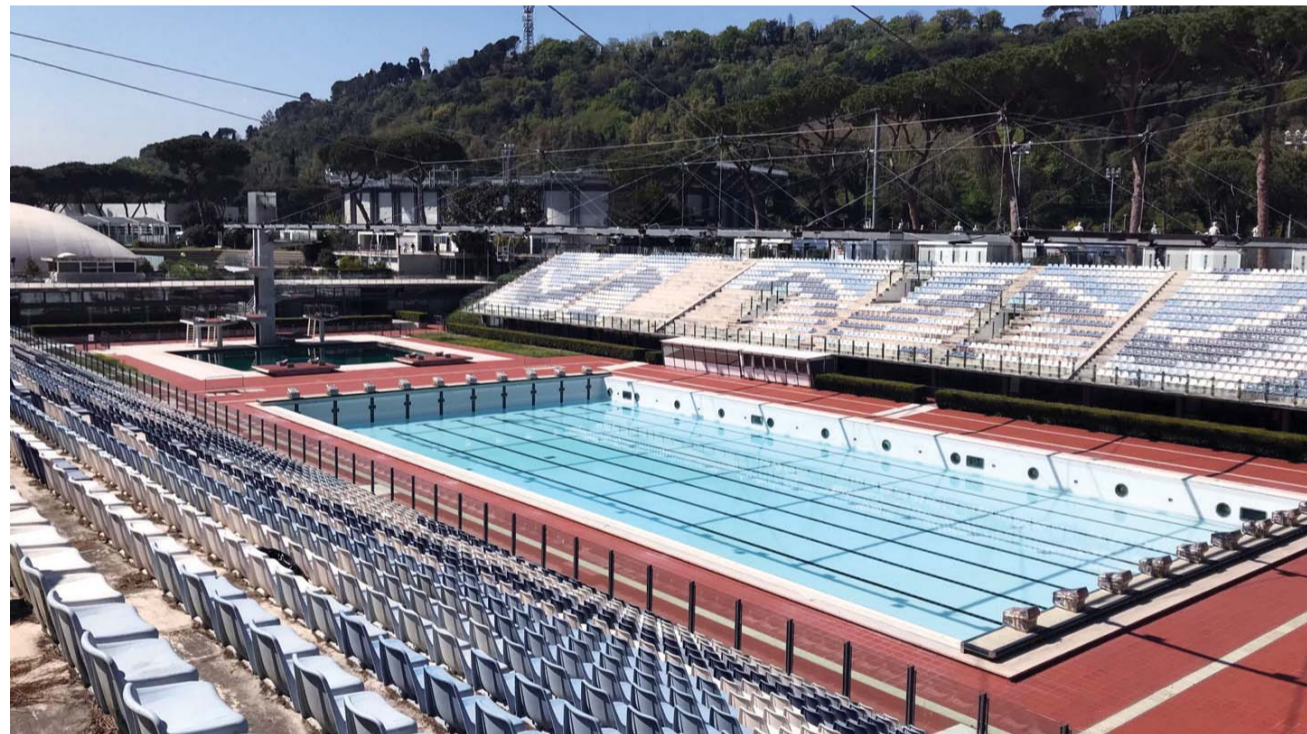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수영연맹 관계자들은 수영대회 시설 점검 차 광주를 방문한 터라 조연을 아끼지 않았다.

플라미니아는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했는데 선수들이 걱정하는 것은 먹고, 자고 지내는 것"이라며 "5월 중에 한 번 더 방문할 계획이며,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영대회를 개최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수송과 등록부분"이라며 "미디어 센터의 경우도 요즘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다른 나라와 시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마=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로마는 2차례 수영대회를 치르면서 시민이 자유롭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사진은 로마수영대회 주경기장 포로 이탈리아 야외수영장 모습.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

노조 10.9% 임금인상 제시에 사측 "무리한 요구"

노사 입장차 극명...파업 가능성 높아

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8일 오후 6시를 기해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9일 오전 7시 투표가 종료돼 파업안이 가결되고 15일 새벽 0시 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시내버스발(發)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광주지역 버스노조는 8일 오후 6시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9일 오전 6시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이른바 7시계 결과가 집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찬반 투표를 하는 조합원 규모는 1500여명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1044대다. 파업 찬반 투표에 앞서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재회의에서 얼굴을 마주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양측은 14일 오후 2시 2차 조정을 진행한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줄어드는 임금 손실분 보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임금 10.9%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적자 상태인데다 시 보조금 액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639억원(운송원가 대비 지원 비율 32.6%)을 광주에서 지원받는 등 매년 보조금이 늘어나는 데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129명의 운전원을 신규 채용에 올해부터는 54억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아야 해서 노조 요구안 수용이 어렵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급여액 평균은 상당 등을 다뤄져 10년차 기준, 세전 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이전이지만, 8일 현재 시내버스 노사 모두 양측 입장이 극명하다는 점에서 실제 파업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광주시 역시 파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특별교통대책 수립에 나선 상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수영대회 서포터즈 교육 8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시민 서포터즈 교육에서 서포터즈 단원들이 전문강사의 응원동작 시연을 따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모지, 구모지 합동참배 광주시·시의회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8일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 5·18민주묘지와 5·18 구모지를 합동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참배에는 이용섭 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종재 행정부시장,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시간부, 시의원,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이용섭 시장은 방명록에 "39년이 지났지만 내부 갈등과 역사왜곡이 잔존하니...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는 5·18민주항쟁추모탑에서 이용섭 시장의 헌화과 분향을 시작으로 목련, 윤상원·박관현 열사 묘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역정가

김용집 '학교 1회용품 제한 조례안' 통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이 제한된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시의원(민주·남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제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주관하는 실내의 행사와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했고 교육감이 각 기관 및 학교에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게 했다.

김용집 의원은 "학생들에게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뤄지고 1회용품 사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연주 노동인권 의무 교육 제정안 상임위 통과

광주시교육감이 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례 제정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연주 의원(정의당·비례)은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광주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시책을 교육감이 마련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광주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노동인권관련 선택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해 직무연수를 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高 나주공업고등학교 NAJU TECHNICAL HIGH SCHOOL



지역 기업에 지역의 인재를!

1972년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로 출발한 나주공업고등학교는 기계·전기계열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생의 소질과 눈높이에 맞는 모듬교육을 통해 학생의 진로 결정을 지원합니다.

학교·교육청·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수기업에서 지역 인재가 자리잡고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학생, 할 줄 아는 학생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질문과 토론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전기과



- 교육과정 : 전기 내선공사 및 전기기기 제작, PLC-공유압 이용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
- 취득자격(기능사) : 공유압, 생산자동화, 송강기, 전기, 전기기기
- 직무 가능 유형 :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 내선공사시공, 전기전자 설비유지

기계과



- 교육과정 : 기계가공 기술 이용 가공조립, 설계 용접 및 특수용접 기술 이용 시공 및 설치
- 취득자격(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설비보전, 용접, 컴퓨터응용밀링, 특수용접
- 직무 가능 유형 : 부품제조 및 가공, 기계조립, 용접, 기계설치 및 정비

금형과



- 교육과정 : 2D 및 3D 기계설계 기술 이용 설계 MCT 및 CNC 공작기계 첨단 가공
- 취득자격(기능사) : 컴퓨터응용 밀링, 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전산응용기계제도(CAD)
- 직무 가능 유형 : 기계설계, 금형제작, 부품가공, 기계설치 및 정비

우리학교 전체 학생 대상

- 교육과정 : 학생의 소질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모듬 교육과정 운영
- 취득자격(기능사) : 지게차, 굴삭기,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기능사, 한국사 자격증을 재학생 70%이상 취득
- 직무 가능 유형 : 현장업무와 사무실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융합직무교육

- 학교와 기업에서 실무능력을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기업 맞춤형 산업체 기능요원 병역특례과정 특성화고 인력양성 과정
- 공공기관·대기업·공무원반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
- 학생이 행복한 학교, 지역민과 함께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교육과정
- 설계, 3D모델링, 컴퓨터활용능력, 사무행정업무를 위한 여학생 사무직 교육과정
- 기계설계/CAD, 배관, 냉동기술 직종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양성 기능영재반
- 전남교육청 개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취업과정 JOBS 교육과정
- 대한민국 명장에게 배우는 현장실무 교육, 배관설비 CEO양성 명장공방 봉사단